제네시스는 첫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GV80의 선전에 힘 입어 올 1~7월 국내 고급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제네시스 GV80 가솔린 외장. 〈제네시스 제공〉

# 제네시스, 고급차 시장 1위 '질주'

## 올해 1~7월 국내 판매량 6만5대 … 1년 전보다 65% ↑

## 벤츠, 하반기 전략 신차 GLB 판매 … 각축전 치열할 듯

올해 상반기 국내 고급차 시장 승자는 제네시스로 판가름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올해 1~7월 국내 판매량이 6만5대로, 국내 고급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이 판매량은 1년 전보다 65% 뛴 수치다.

제네시스가 1위에 오른 것은 브랜드 출범 다음 해인 2016년 6만6278대를 판매한 이후 4년 만이다.

지난 2016년 제네시스는 G80 부분변경 모델과 EQ900(현재 G90)을 각각 4만2950대, 2만3328대 팔았다.

지난해에는 신차급으로 달라진 G90(EQ900)이 1만7542대 팔리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고 G70도 1만6975대 판매됐다. 그럼에도 매해 신기록을 세운 벤츠(7만8133대)에는 크게 뒤쳐졌다.

제네시스 판매 1위는 올해 1월 처음 선보인 첫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GV80의 공이 크다. 3월 말에는 3세대 G80도 나왔다.

GV80은 7월까지 2만16대 판매되며 올해 목표(2만4000대)에 바짝 다가섰고, G80은 2만8993대 팔리며 지난해 연간 판매량(2만2284대)을 넘었다.

두 모델 모두 주문이 밀릴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제네시스는 이달 판매기록까지 치면 2016년 연간 기록까지 넘어서며 신기록을 쓸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는 하반기에는 젊은 고객층에 맞는 신차를 준비하고 있다. 두번째 SUV이자 GV80보다 한 체급 작은 GV70이 나온다. G70 부분변경 모델도 나온다.

상반기는 제네시스의 우세가 돋보였지만 하반기 고급차 시장은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하반기 전략 신차 GLB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GLA와 GLC 모델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등 메르세데스-벤츠의 라인업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우선 GLB는 5인승인 GLB 220과 7인승인 GLB 250 4매틱 모델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가격의 '패밀리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 메르세데스-벤츠는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베스트셀링카에 오른 E클래스 부분변경 모델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김지섭 벤츠 고객서비스 총괄 부문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마세라티 SUV '르반떼' 광주서 오늘부터 시승 이벤트

마세라티는 '르반떼 익스클루시브 드라이브 시승이벤트'를 18일부터 오는 9월5일까지 광주를 포함한 전국 9개 마세라티 전시장에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세라티 기블리와 콰트로포르테 모델의 '트로페오(Trofeo)' 라인업 글로벌 출시를 기념해 마련했다.

행사 대상 차종은 르반떼 '그란루쏘', '그란스포츠' 트림을 비롯해 이탈리아 명품브랜드 '에르메네질도 제나'와 협업으로 탄생해 국내 20대 한정 판매되는 '제나 펠레테스타 에디션'과 550마력의 고성능 트림 'GTS', 590마력을 발휘하는 슈퍼 SUV '트로페오'를 포함한 르반떼 전 차종으로 실시된다.

르반떼는 온화한 바람에서 일순간 강풍으로 돌변하는 '지중해 바람'이라는 뜻으로, 100년 넘는 마세라티 브랜드 역사 최초의 SUV 모델이다. 차별화된 이탈리안 감성의 감각적 디자인을 바탕으로 전통 레이싱 혈통을 품은 그랜드 투어러(GT)인 만큼 강력한 퍼포먼스와 편안함을 동시에 갖췄다.

행사는 전문가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 리셉션 ▲르반떼 프레젠테이션 ▲하이퍼포먼스 럭셔리 경험 순으로 진행된다. 시승고객 전원에게는 마세라티 소프트 파우치를 제공하며, 계약 및 출고고객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마세라티x에르메네질도 제나 여행용 트롤리 백'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9개 마세라티 전시장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마세라티 '르반떼'

# 올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N라인 출시

## 현대차, 6단 DCT와 통합형 리튬 배터리 시스템

현대자동차는 지난 13일 올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N라인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은 것은 11년 만이다. 2009년 LPG(액화석유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이후 이번에 가솔린 엔진 기반으로 내놨다.

하이브리드에는 6단 DCT(더블 클러치 변속기)와 통합형 리튬 배터리 시스템이 들어갔다.

고전압과 저전압 배터리가 통합돼서 배터리 무게와 부피는 줄이고 연료효율을 높여서 복합연비 21.1㎞/ℓ(16인치 휠 기준)를 달성했다.

통합형 배터리를 뒷좌석 아래에 넣어서 기본 모델과 비슷한 크기 공간을 확보했다.

N 라인은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에서 영감을 받은 주행 감성과 디자인을 적용한 모델이다.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최고출력 204PS, 최대토크 27.0kgf·m의 성능을 내고 6단 수동변속기와 7단 DCT(더블클러치변속기)가 적용됐다.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과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 N 라인 전용 18인치 전면가공 알로이 휠도 기본으로 장착됐다.

주행 중 변속기 단을 낮추면 순간적으로 엔진 회전수를 조정해 변속을 부드럽게 하며 빠른 재가속이 가능토록 하는 고성능 사양인 레브 매칭 기능도 7단 DCT 모델에 들어갔다.

'로우 앤 와이드'(낮고 넓게)를 디자인 콘셉트로 앞부분엔 N라인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N라인 엠블럼 등을 넣고 옆부분엔 차체가 낮게 보이게 하는 사이드실, 뒷부분엔 날렵한 느낌을 주는 스포일러 등을 넣었다.

현대차 '올 뉴 아반떼 N라인' 외장

현대차는 N 라인 초기 출고 고객(개인·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N 브랜드 '굿즈' 증정 행사를 한다.

가격은 하이브리드는 2199만~2814만원이고, N라인은 2179만~2779만원에서 시작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코나 일렉트릭, 한 번 충전으로 1000㎞ 넘게 달렸다

## 현대차 독일에서 시험주행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최장 거리는?

현대자동차는 독일에서 소형 전기 SUV '코나 일렉트릭' 시험주행을 벌인 결과 한 번 충전으로 1000㎞ 넘게 달렸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차가 지난달 22~24일 코나 일렉트릭 3대를 가지고 시험주행을 한 결과 각각 1026㎞, 1024.1㎞, 1018.7㎞를 주행거리를 기록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전기차 연비는 1kWh당 약 16㎞ 안팎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 공인 5.6 ㎞/kWh를 훌쩍 넘었다.

이번 시험주행은 약 35시간 동안 독일의 레이싱 서킷인 유로스피드웨이 라우지츠(라우지츠링)에서 운전자가 교대로 운전하며 했다.

독일 대표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와 협업해서 한 이번 시험에는 일반 양산차가 투입됐고 라우지츠링 운영사인 데크라가 시험 과정을 모니터링했다.

차량 시스템 조작 등은 없었지만 전력 소모를 줄이고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에어컨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껐다.

다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주간 주행등(DRL)은 켠 채로 달렸다.

평균속도는 시간당 약 30㎞였다. 이는 교통체증, 신호대기, 주거지역 제한 속도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도심 주행 평균 속도와 비슷하다고 현대차는 말했다.

현대차는 3대가 모두 1000㎞ 이상 주행거리를 기록해 제조상 편차가 적었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